

부처님 가피 속 무럭무럭 꿈 키워요

원오사 꿈나무 공부방 제2회 졸업식... “가난이 아이들 날개 꺾지 않아야”



정관 스님이 졸업식에서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하고 있다.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사하촌(寺下村) 사람들이 어린 꿈나무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설립한 '원오사 꿈나무공부방'의 두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반송 윤봉초등학교 강당에서 19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공부방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5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

2008년 5월 문을 연 공부방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지

역아동센터'가 대상자를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규정하면서, 조순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부모 등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위해 개설됐다.

아이들은 매일 오후 5시 30분 공부방에 등교해 저녁 9시까지 저녁 공양부터 수학, 영어, 한문 등 기초 학습을 진행한다. 3월부터는 재학생 전원이 중학생으로 진급한 만큼

국·영·수 중심의 과목별 지도교사 봉사자를 재정비한다.

'원오사 꿈나무공부방'은 교과 학습 이외에도 오카리나 악기 수업, 독서교육, 롯데디자인즈 이대호 선수의 야구경기 초청관람 등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부방은 지역 장학생 15명에게 용돈장학금과 북한어린이돕기 등으로 5600여 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아이들 담임교사인 배현정씨는 “뜨래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점점 공부에 재미를 붙여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곳에서는 향후 100평 규모의 공부방과 도서실 불사 및 과목별 지도교사 증원, '꿈나무기구 장학회'의 재단법인 정식 등록 등을 추진 중이다.

정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눔과 배움으로 아이들이 가난으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51101-01-319589 꿈나무기구 / 문의 (051) 545-7949 박지원 기자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敎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敎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佛敎)란 :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敎)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육마니반메흠)
특별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상(空思想) = 공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敎)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敎)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구

심인불교대학 무애정사

문의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천진불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가득

어린이포교 새 성공모델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부산 구서동의 주택가에 자리한 금화사(주지 매물)에는 주말이면 천진불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도량이 들썩인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금화사 초등불교학교(교장 김광호, 현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는 1996년 천자문교실로 시작해, 97년 '어린이법회'가 아닌 '초등불교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조계종 포교원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청소년포교 중심도량'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등록된 재학생 수만 30여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 어린이포교도량이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면 곧바로 퇴학을 당하게 된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오랜 전통인 졸업식에서는 졸업장과 함께 트로피, 움자가 새겨진 순금목걸이, 도장 등이 수여된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는 약 40명이 가입해,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한동안

쇠뿔한 거사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아버지들의 가입은 권유가 아닌 필수 사항이다. 실제로 경내를 벗어난 외부행사에서는 아버지들의 참석율도 높게 나타난다.

김광호 학교장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학업 성적이 아닌 인성교육과 규칙적 생활, 그리고 효경사상이다”라고 강조했다.

(051) 582-3042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박지원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전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불교교육 프로그램 앞다퉈 속속 개강

3월 부산 지역 사찰 및 신학단체에서는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불교교육프로그램을 앞다퉈 개강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교육관(학장 무관·구.안국불교대학)에서는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더불어 '불교학과' '선문화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등 3개 불교학과로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이 마련된다. 문의 (051) 501-7554-5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제16기 국제포교사양성과정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3월 4일. 문의 (051) 508-0345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도 제1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지도사과정'과 '전문지도사과정(자격증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집에서 컴퓨터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반을 운영해 인기가 높다. 문의 (051) 852-0852 박지원 기자

“정부, 북한 포용해야”

부산종교지도자협, 제92주년 3·1절 기념 평화기도회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2월 22일 오후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제92주년 3·1절 기념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포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북한은 아집과 분열이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제92주년 3·1절을 맞아 천도교 지도자 김성수 도훈(전 부산동천교교장)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인 간의 친목과 이해 증진, 공동선 실천을 위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불교, 기독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개 교단 성직자와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다. 문의 (051) 558-1970 박지원 기자

정각 스님, 일불선교종 제5세 종정 취임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제5세 종정 정각 스님의 취임법회가 2월 22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사에서 스님은 “종도간의 결속력을 다지



고 일체감을 확립하며, 종단의 포교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를 통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